

## 정부는 신속집행을 통해 민생안정 등을 위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했습니다.

### <보도내용>

- 2025.2.5. 세계일보는 「정부 “세출 예산 차질없이 집행” 공염불이었나」 기사에서,
  - 2024년 집행률은 96.1%로 대규모 세수 핑크로 집행률이 낮았던 2023년 95.6%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, 이는 2010~2022년 평균치보다 약 2%p 낮음
  - 정부가 세출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정부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성장세가 더욱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

### <기획재정부 입장>

- 2024년 총지출 집행률은 기금결산 결과까지 포함하여 4월에 확정 예정으로,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.
  - 참고로 2023년 총지출 집행률의 경우 내국세와 연동하여 교부세(금)을 축소(18.6조원 집행보류)한 것과 재해감소로 예비비가 자연불용(3.3조원)되어 평년 대비 다소 낮았던 측면이 있으나,
  - 교부세(금)와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률(96.5%)은 평년의 집행률(97.2%)과 유사합니다.

\* 교부세(금)·예비비 제외한 '23년 집행률: 96.5% vs 평균 집행률('10~'22): 97.2%

□ 정부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성장세가 더욱 약해졌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.

○ 정부는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금 적기배정, 계약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추진하여 2024년 정부부문의 국내총생산(GDP) 성장 기여도는 4분기 연속으로 0.0%p 이상(연간 0.4%p)을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 하였습니다.

\* '24년 분기별 정부기여도(%p): (1/4)0.1 (2/4)0.0 (3/4)0.4 (4/4)0.0 <연간>0.4

담당 부서	재정관리국 재정지출관리과	책임자	과 장	정석철 (044-215-5330)
		담당자	사무관	송현정 (hjsong123@korea.kr)
담당 부서	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	책임자	과 장	이기훈 (044-215-5430)
		담당자	사무관	안형자 (withja@korea.kr)